

KIA 영건들 '제2의 최지민 꿈' 영근다

KIA, 호주·미국에 신예 파견...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훈련 투수 황동하·유승철·내야수 박민 등 "수준높은 리그서 좋은 경험"

KIA 타이거즈 영건들이 '제2의 최지민'을 꿈꾸며 호주로 떠났다.

KIA는 1일 호주 캔버라 나라본다 볼파크에 캠프를 꾸리고 2024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한다. 21일까지 캔버라에서 기분을 다지는 선수들은 이후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6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등 실전 경험까지 더하고 3월 6일 귀국한다.

휴식기에도 휴식 없이 달렸던 신예 선수들의 성장세가 이번 캠프의 관심사 중 하나다.

KIA는 지난 겨울 호주리그에 선수들을 파견해, 캔버라 캠프로 소속으로 실전을 소화하게 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라인에도 마운드 영건들을 파견해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훈련의 기회를 다졌다.

과감한 투자를 한 KIA는 '제2의 최지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최지민은 아쉬운 프로 데뷔 시즌을 보낸 뒤 질풍 코리아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했다. 다양한 상황에서 수준 높은 타자들을 상대한 최지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깜짝 활약'을 선보였다. 최지민은 2023시즌 팀은 물론 국가대표 필승조로 발돋움하면서 프로 3년 차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도 합류했다.

비밀 비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은 입을 모아 "좋은 경험이었다"며 2024시즌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투수 김기훈·유승철과 내야수 박민은 익숙한 캔버라에서 호흡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좌완 김기훈은 "최대한 내가 생각했던 운동을 하려고 했다. 좋은 경험이 됐다"며 호주 캠프에서 준비한 것들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우완 유승철도 "너무 좋았다 할 수 있는 것 다하고 왔다"며 호주리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 "투구수, 등판 간격 등 관리 잘해주셔서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점수를 주기는 했지만 결과도 좋았고, 내 약점이 뭔지 아니까 변화구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다. 내 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생겨서 왔다"며 "이것을 어떻게 시즌 때까지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 페이스를 이어가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내야수 박민도 수준 높은 리그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속제도 확인했다.

박민은 "호주리그 수준이 높다. 개인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고전도 했다. 생활이 다르고 비행기로 원정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가 안 됐다"며 "수비는 잘했는데, 타석에서 빠른 계열의 변화구인 투심, 커터 이런 것에 적응이 어려웠다. 150km이상의 빠른 직구 타이밍은 괜찮았다"고 말했다.

또 "좋은 경험이었다. 비시즌에 운동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타협할 수 있는데 경기를 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 수비가 내 강점이다. 캠프에서 강점을 많이 살리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했다.

정해영·이의리·윤영철·곽도규와 함께 드라이브 라인에 다녀온 우완 황동하도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더하겠다는 각오다.

황동하는 "좋은 경험이었다.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내가 구속이 잘 나왔던 이유와 더 나올 수 있는데 막고 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다"며 "다른 부분은 평균이었는데 팔



유승철



황동하



박민

스피드가 빨라서 스피드가 잘 나왔다. 그런데 몸의 스피드가 느리고, 전진하는 힘이 약해서 팔 스피드가 빨라도 스피드가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를 들고 나서 던지기 직전까지 스피드가 느려서 마운드 경사진 곳에서 운동을 많이 했다"며 "긴장도 많이 된다. 설렘 반 긴장 반이다. 딱히 목표를 정해놓은 것은 없다. 그냥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곳까지 따라가서 부딪힐 것이다. 특별한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생각이다"고 첫 스프링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틀 쉬는 한국, 나흘 쉬는 호주 넘어라

후반 추가시간 조규성 동점골 연장전·승부차기에 체력 고갈 체력 회복이 4강 진출 과제



'사우디아라비아만 넘으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클린스만호 앞에 산 넘어 산이 펼쳐졌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31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지휘 아래 조별리그에서 단 한 골만 내주는 잔물 축구로 F조 1위(2승 1무)로 16강에 오른 사우디와 경기는 클린스만호에 첫 고비였다.

사우디만 넘으면 비교적 수월한 길이 펼쳐질 것처럼 보였다.

8강에 선착한 호주는 조별리그에서 시원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조 최약체 인도를 상대로 답답한 경기를 펼쳤고,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에는 확연하게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 호주를 넘으면 타지키스탄-요르단 경기 승자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타지키스탄은 처음으로 아시안컵에 진출해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다.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우승 후보 1순위' 일본에 깜짝 승리를 거둔 이라크를 16강에서 3-2 명승부 끝에 돌려세우고 8강에 올랐다.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은 없지만, 한국 쪽 대진표가 반대편 대진표에 비해 수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반대편에는 일본, 개최국 카타르,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 보인 이란이 포진해 있다.

클린스만호 조 2위를 한 게 외려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만약 1위를 했다면, 일본, 카타르, 이란 등을 결승 전에 상대해야 했다.

그런데 클린스만호가 사우디를 상대로 90분 안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진 상의 '상대적 이점'은 많이 희석된 것처럼 보인다.

8강전을 앞두고 한국은 호주보다 이틀이나 적은



지난 31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조규성이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휴식 시간이 주어져 승부차기까지 치르느라 체력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호주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2시 30분 인도네시아와 16강전(4-0 호주 승)을 치렀다.

한국과 8강전은 현지 시간으로 내달 2일 오후 6시 30분에 치른다.

인도네시아와 경기가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고 치면 호주는 8강전까지 122시간의 여유가 있다.

반면에 120분이 넘는 혈투 끝에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10시에 16강전을 마친 한국에는 68시간 30분의 시간만 주어진다.

특히 호주는 체력과 스피드가 강점인 팀이어서 체력 문제가 클린스만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클린스만호 선수들이 남은 시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4강 진출의 최대 과제가 될 것

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 1위를 해서 이런 일정을 피하고 싶었다. 조 1위를 못 했으니 이제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남은 시간이 적지는 않다.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오늘 승리가 팀 분위기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수비 강화 호주 출신 포포비치 영입

광주FC가 호주 출신 중앙 수비수 포포비치(21·Alexandar Popovic·사진)로 수비를 강화한다.

광주가 지난 31일 '호주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포포비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184cm·83kg 체격의 포포비치는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공간 커버와 일대일 수비가 뛰어나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체 수비 라인을 읽으며 리더 역할을 하는 중앙수비수이기도 하다.

2018년 호주 A리그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그는 South Australia NPL(호주 South Australia 주리그)에서 2군 경기를 뛰며 기량을 키웠다.

2018 AFC U17 챔피언십 대표팀에 소집돼 4강 무대를 경험한 그는 2021년 정식으로 프루 무대에 데뷔했다.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경쟁력을 키운 포포비치는 2022년 A리그 울스타에도 선정됐다.

그는 2023 AFC Asian Cup 예선 호주 U22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등 호주 차기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 축구를 보면서 흥미를 느꼈다"며 광주를 언급한 포포비치는 "내 축구 능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광주 팬들을 만나고 싶다. 또 지난 시즌보다 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광주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